

Ignatius Kögler(戴進賢)이 觀象監에 끼친 영향

김 용 기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나 일 성

연세대학교 천문대기학과

17세기부터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 천문학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북경을 중심으로 점차로 확고하게 터를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의 관상감은 이 새로운 학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소위 西法이라 불리우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천문도, 曆法, 그리고 각종 관측기기들을 배우고 또 구입하여 가지고 오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중국 관리들의 방해로 서양 선교사 천문학자들과의 개인 접촉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제약을 받았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 西人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實錄, 文獻備考, 承政院日記 등에 간간히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극히 피상적이다. 따라서, 중국에 와서 활동한 그 많은 西人 학자들 중에 조선에서 북경으로 찾아간 관상감 관원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또한 서양의 천문학을 가르쳐 준 자가 과연 누구였던가를 알아내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상기한 문헌에는 5~6명 정도의 서양 천문학자들의 이름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관상감의 누구와 어떤 일로 접촉하였는지 알아보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몇 자의 기록뿐이다. 여기에 소개하려고 하는 Ignatius Kögler는 위에 언급한 5~6명의 西人 중의 한 사람이며, 빈약한 기록이라는 점에 있어서 예외의 인물이 아니다. 다만, 우리들이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천문도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그가 조선의 관상감에 미친 영향의 단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의 시발점을 삼으려 한다.